



도·시군, 전북 발전 '의기투합'

제6차 도·시군 정책협의회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한
기재부 대응 전략 논의

완주 산단 근로자 복지 등
시군 우수정책 사례 발표
지역 정체성 강화 위한
전북사랑도민제 협약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전북 도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
속가능한 전북 발전을 위한 '연대와
상생'의 의지를 함께 다졌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고창군 웰
파크호텔에서 민선 8기 제6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
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현을 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
장)을 비롯해 도내 시장·군수들이 모
두 참석해 도정 핵심과제와 시군 간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주요 안건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2026년도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대응
전략 등 전북 미래 발전을 위한 중점
정책이었다.

전북자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와 관련해 지난 2월 전주가 국내 후
보 도시로 선정된 만큼, 이제는 세계
유치 경쟁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시군
간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시장·군수들도 전북 전
체가 하나의 팀이 되어 국제 유치전
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



지난 27일 고창 웰파크호텔에서 열린 민선8기 제6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현을 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가 도정의 핵심과제와 시군 우수정책을 논의하고 전북사랑도민제·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하고 있다

을 모았다.

또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
후 국가 예산 및 대통령 공약사업 반
영이 전북 도정 및 시군 현안을 해결
할 중요한 기회라는 인식도 공유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단계
부터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연대
와 협력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
을 모았다.

협의회에서는 시군 우수정책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정읍시는 '3개년 도심지역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복
잡한 절차와 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율
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주민
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완주군은 '산단 근로자 복지 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단지 근
로자들에게 로컬푸드 기반 조식 제공
과 작업복 세탁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환경 개선과 만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를 발표했
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우수 사례들
이 전 시군에 확산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행정이 보다 활
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정책은 결국 도민
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며, "현장에서 나온 우수사례를 통해
실질적 행정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북의 정체성과

지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북사랑
도민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전북사랑도민제는 도 외 지역에 거
주하는 출향민과 타지역 주민의 가입
을 유도하고, 전북 지역 내 할인가맹
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와 시군 간 상
호 홍보 및 상호 기부, 공동사업 발굴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방
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도와 시군이 하나로 연대해 지역 현안
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강화하고, 도
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
지를 재확인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남호 전북연구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지역의 미래 보장된다

전북 백년포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강

"지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창출해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방주도형 新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K-컬처를 매개로 한
지역 글로벌화가 절대 다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정
부 주도의 신발전전략 수립과 협
력, 규제 완화와 포괄적 재정 확보
병행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27
일 전북연구원이 마련한 '전북백
년포럼' 특강에서 '속도에 혁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지역간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근
원을 세 가지 집단적 특성, 즉 '한
(恨)', '흥(興)', '정(情)'으로 설
명했다. '한'은 지정학적 위기 속
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민족의 생존본능이며, '흥'은 K-
컬처로 꽃피운 창의성과 표현력,
'정'은 포용성과 공동체 정신으로
발전된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DNA가 '속
도의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국가
자산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속도에 '혁신'을 더한 전략

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지방
주도형 新국가균형발전과 K-컬처
를 매개로 한 지역 글로벌화의 필
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목표를 실현시
키려면 지방정부 주도와 협력, 규
제 완화와 포괄적 재정 확보가 병
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역이 스스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
다"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특례시-인구감소지역 간
상생 협력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
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련한 전북연구원 이남
호 원장은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성장 전략을 동시에
조망하며, 지역이 국가 발전의 주
체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매우 인상 깊은 자리였다"며, "전
북연구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
래 비전과 지역전략을 연결하는
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
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
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
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
한다. /이만호 기자

외국인 정착·유입 돕는다... 도, 비자체류정책 온라인 제안창구 개설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의 정착과
유입을 돕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온라
인 제안창구'를 개설한다.

이번 창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
북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bok.
kr)'과 '전북의국인포털(www.myjb.

현장 제안 접수부터 법무부 건의까지 체계적 추진

or.kr)' 내에 별도 메뉴로 마련됐다.

누구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비자개
선 아이디어 제안'을 클릭하면, 이름
과 연락처, 제안 배경과 개선안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조사와 실태 분석을 실시한 뒤,
타당한 내용은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비자 관련 제안은 외국인
국제정책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유학,
계절근로, 다문화 분야는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제안이 법무부 심의회에
상정되면 제안자에게 심의결과와 지
침개정결과를 통보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누구나 찾고, 머물고, 살고 싶은 곳,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치를 높이고
당신의 꿈을 담아 전북의 미래를 짓습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전북 지역균형발전 선도

스마트 첨단산업도시 개발

신환경
주거안정도시건설

디지털 열린 소통 경영

전북개발공사